

연결어미의 접속 기능에 대하여

유 혜 령 (한국교원대학교)

1. 서론

접속표현이란 텍스트의 차원에서 볼 때, 사건과 상황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텍스트의 내적 구조가 여러 가지 언어 형식을 통해 텍스트 표층에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접속표현의 효과적인 사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은희(1993)에서는 접속관계에 대해, 언어 이해 과정에서 글의 구조 형성의 논리적 지표로 작용하면서 글의 의미기저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언어를 생산할 때 계속적인 선택 과정 속에서 필자의 심리를 표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접속관계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지도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는 텍스트의 접속관계를 거시적인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거나 접속부사에만 한정하여 다루고 있을 뿐이다.

연결어미는 문법형태소의 일종으로서 텍스트 전체에서 두드러지는 요소는 아니지만, 텍스트의 접속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형식 중 하나로 응결성(cohesion)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응결성은 특히 둘 이상의 구, 절, 문장 사이에서보다도 하나의 구, 절, 문장 내부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Beaugrande & Dressler, 1981: 71).¹⁾ 기본적으로 문장의 범위

1) Beaugrande & Dressler(1981)에 대한 역서(1995)에서는 cohesion이라는 용어를 ‘응

안에서 논리적인 연결 관계가 정확히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텍스트 전체의 통일성도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국어과에서 다루는 접속관계의 교수·학습 내용에서 접속어를 접속부사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연결어미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연결어미가 접속부사와 함께 텍스트의 접속관계를 표출하는 언어적 장치로 교수·학습되어야 하는 이유와 텍스트 안에서 연결어미의 접속 기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결어미의 접속 기능

응결성은 문장 밖에서보다 하나의 구, 절, 문장 내부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문장 단위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응결성과 관련되는 규칙들은 텍스트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도이지만, 연결어미와 같이 문장 내부에 위치하는 언어형식의 잘못된 사용은 텍스트 생산에서 결정적인 혼란을 야기하므로, 연결어미의 정확한 사용은 텍스트 생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어과에서 다루고 있는 접속관계의 교육 내용에는 연결어미 관련 내용이 배제되어 있다. 우선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접속관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연결어미에 의한 접속 역시 접속부사에 의한 접속과 더불어 접속관계의 교수·학습 내용에서 다루어야 함을 논의한다. 그리고 연결어미가 텍스트에서 접속관계를 표현하는 언어형식으로 선택되는 과정에 대하여 논의한다.

결성' 대신 '결속구조'로 번역하였다. cohesion은 이밖에도 역자에 따라 표충결속성(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4), 응집성(Brinker, 1994, 이성만 역), 형식적 거밀쇠(양태식·박정수, 2003)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한국텍스트언어학회(2004)의 용어를 따라 cohesion은 '응결성'으로 coherence는 '응집성'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2.1.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검토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지식 영역과 관련하여 과목별, 학년별로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국어 과목의 경우, 내용을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으로 나누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인 초등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학년 동안 각 영역에서 성취해야 할 교육 내용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어과에서는 접속관계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접속의 언어표출 형식을 접속부사에 국한하고 연결어미는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연결어미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 별로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국어과의 국어지식 영역에서 접속관계와 관련될 수 있는 내용 항목을 찾아 제시하면 다음 (1)과 같다.

(1) ㄱ. [3-국-(3)] 이어 주는 말의 기능을 안다.

나. [6-국-(4)]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를 안다.

(1 ㄱ)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어지식 영역 3학년에는 ‘이어 주는 말의 기능을 안다.’는 내용 항목이 있다. 이의 교과서 구현 양상을 살펴보면, ‘말하기·듣기’와 ‘쓰기’ 교과서에는 말을 원인과 결과로 연결하여 듣거나, 말하기 또는 쓰기를 연습하도록 되어 있다. ‘읽기’ 교과서에는 이어주는 말, 접속부사의 쓰임을 알고 적절한 접속부사를 넣거나, 접속부사 뒤에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넣는 연습을 하도록 구성된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 (2)에 제시된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읽기’ 교과서의 셋째 마당 ‘생각하는 생활’의 학습 내용 일부이다.

(2) ㄱ. 내용의 연결 관계를 생각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명우는 마음씨가 착합니다.

(그리고)

명우는 축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명우를 좋아합니다.

ㄴ. 이어 주는 말의 쓰임을 알아봅시다.

- 이어 주는 말이 문장과 문장을 어떻게 이어 주는지 살펴봅시다.
- 다음 글은 ‘지혜로운 아들’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어 주는 말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지혜로운 아들’을 읽어 봅시다.
- () 안에 이어 주는 말을 넣어 봅시다.

ㄷ. · 이어 주는 말의 쓰임을 생각하며 ‘지혜로운 아들’을 읽어 보았습니다.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 안에 이어 주는 말을 넣어 봅시다.

- 이어 주는 말 뒤에 알맞은 문장을 써 넣어 봅시다.
- 이어 주는 말이 앞뒤 문장을 어떻게 연결하여 주는지 생각하며 ‘지혜로운 아들’을 다시 읽어 봅시다.
- 내가 이방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와 사또에게 어떻게 말하였을지 이어 주는 말을 넣어 말하여 봅시다.

ㄹ. 문장과 문장을 어떻게 연결하였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 앞뒤 내용을 어떻게 연결하였는지 생각하며 ‘호돌이 수첩’을 읽어 봅시다.
- () 안에 이어 주는 말을 넣고, 이어질 문장을 써 봅시다.

(1 ㄱ)에 제시된 “이어 주는 말의 기능을 안다”라는 내용 항목은 위의 (2)와 같이 교과서에 구현되어 있다. 이 때 말을 연결하는 차원은 문장과 문장이고 문장 내에서 절과 절 사이의 연결은 제외되어 있다. 국어지식 영역 6학년의 내용 항목 중 하나인 (1 ㄴ)도 이와 마찬가지로 절을 포함한 문장 내의 단위는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국어과 국어지식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접속관계는 연결어미의 접속 기능과 쓰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인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즉 중학교 1학년에

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경우, 국어지식 영역의 교육과정에 연결어미는 물론이고 접속관계에 관한 내용조차도 제시된 것이 없다.

한편, 고등학교 ‘문법’의 경우는 과목의 특성상 연결어미를 문법형태소라는 언어 형식요소로 직접 다루고 있거나 문장의 짜임새와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은 연결어미의 하위부류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제시된 글에서 어미들을 찾아 종류별로 구분하는 활동, 연결어미의 하위분류 체계, 접속문의 통사적 특성에 따른 대등절과 종속절의 구분, 연결어미의 의미관계 등에 국한된 형태적·통사적 차원의 기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문법’ 과목 역시 연결어미를 실제 언어 사용과 직결시켜 접속의 기능을 하는 언어 형식의 한 가지로 기술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능 영역에서는 문법 지식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으나,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접속관계 관련 교육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 다음의 (3)은 기능 영역에서 접속관계와 관련될 수 있는 학습 내용 요소들을 뽑아 제시한 것이다.

(3) ㄱ. 말하기 영역

[3-말-(3)]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내용을 전개하여 말한다.

[8-말-(3)] 응집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여 말한다.

ㄴ. 듣기 영역

[3-듣-(3)] 내용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며 듣는다.

[8-듣-(2)] 내용과 내용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표지에 유의하며 듣는다.

ㄷ. 읽기 영역

[3-읽-(4)] 내용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3-읽-(4)] 일관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8-읽-(2)] 내용과 내용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표지에 유의하며 글을 읽는다.

ㄹ. 쓰기 영역

[8-쓰-(3)] 일관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8-쓰-(5)]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한 부분을 고쳐 쓴다.

(3 ㄱ)에 제시된 말하기 영역의 내용항목들은 문장 단위 이상의 내용적, 의미적 연결 관계를 다루는 응집성(coherence) 차원의 접근이므로 연결어미와 관련되기 힘들다.

(3 ㄴ, ㄷ)에 제시된 듣기나 읽기 영역의 경우에도 문장 단위 이상의 텍스트 연결로 제한하였으므로 연결어미 관련 내용은 배제되었다.

(3 ㄹ)에 제시된 쓰기 영역의 내용 항목을 중학교 생활국어²⁾ 교과서에 구현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생활국어 2학년 1학기 교과서의 4단원인 ‘내용 구성하여 쓰기’에서는 ‘문장을 연결하여 쓰기’와 ‘내용을 연결하여 쓰기’를 다루고 있으며, 적절한 접속어와 지시어의 판별과 사용 연습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장 이상의 단위를 접속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접속어의 교수·학습에서 연결어미는 제외되어 있다.

중학교 생활국어 2학년 2학기 교과서 4단원 ‘글쓰기와 다듬기’의 ‘둘러 읽고 고쳐 쓰기’에서는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 쓰기를 다루고 있지만 역시 연결어미 관련 학습 내용이 구체적으로 연결되기 힘들다.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고찰한 결과, 연결어미와 관련된 교육 내용은 접속관계를 다루는 부분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극히 부분적으로 연결어미 관련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도 ‘접속’이라는 기능에 초점을 두지 않고, 형태론과 통사론 차원의 기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2. 텍스트 차원에서 연결어미의 접속 기능

일반적으로 연결어미의 기능은 하나의 문장 안에서 절과 절을 접속하

2)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국어’와 ‘생활국어’로 나뉘어 있다. ‘국어’는 ‘읽기’와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국어’는 ‘듣기’, ‘말하기’, ‘쓰기’, ‘국어지식’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는 것으로 기술된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 대상을 문장 단위 이상으로 보는 접속 관계의 기술에서 연결어미가 제외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어과에서 다루는 접속관계의 교수·학습 내용에 연결어미도 접속부사와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즉, 연결어미도 접속부사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내에서 접속을 나타내는 응결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의 표층 요소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은 응결성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하므로(Beaugrande & Dressler, 1981) 연결어미도 응결장치로 보아야 한다.

앞 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어지식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접속관계에서는 문장 이상의 단위만 접속 대상으로 보고 접속어를 접속부사로 제한함으로써, 접속관계의 언어적 표출 양상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접속사라는 한 가지 언어형식으로 접속관계를 표출하는 인 구어와는 확연히 다른 국어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첨가어인 국어는 어미와 조사가 대단히 발달하여 있는데, 이러한 문법 형태소들이 어휘 의미 이상의 중요한 형식적 의미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국어에서는 어미와 조사도 응결성을 표출하는 언어형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영근, 1999). 영어의 경우는 접속사가 문장 내의 단위와 문장 이상의 단위를 연결하는 데 모두 사용될 수 있지만 국어의 경우는 문장 이상의 단위일 때는 접속부사로 나타나고 문장 내의 단위일 때는 연결어미나 접속조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언어학자들이 문장 단위를 벗어난 언어 구조에 관심을 두고 텍스트에서 언어 규칙을 찾기 시작한 이후, ‘응결성(cohesion)’이라는 개념은 그 연구 범위가 문장 단위를 넘어서는 보다 큰 범위로 확장되었다.³⁾ 그래서인지

3) cohesion이라는 용어는 학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Halliday & Hasan(1976)에서는 cohesion을 의미적 개념으로 사용하였고, Beaugrande & Dressler(1981)에서는 통사적 장치로 파악하였으며, Brinker(1992)는 cohesion과

국어학이나 국어교육학에서는 문장 단위 이상에서만 응결성의 개념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국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제시된 접속관계 관련 교육 내용이 접속부사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그러한 면을 반영한다. 그러나 응결성의 개념은 기존의 문장 내의 범위에서 문장 단위 이상의 범위로 확장된 것이지, 문장 내의 범위가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연결어미가 문장 내 요소 간의 접속관계를 표현할지라도 텍스트에서의 접속관계의 교수·학습 내용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연결어미는 문법 형태소로서 단순히 하나의 문장 안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을 이어주는 통사적 차원의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문장의 범위를 넘어서 접속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연결어미는 한 문장 내에서 절과 절의 의미 관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절 이상의 단위를 연결하기도 하고, 문장 외적인 상황이나 문장 밖의 의미 요소와 연결되기도 한다. 다음의 (4)를 보자.

(4) ㄱ. 형식은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다.

ㄴ. 그는 손수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다.

ㄷ. 그리고 마당에서 개나리꽃을 꺾어 식탁 위의 꽃병에 꽂아 두었다.

ㄹ. 그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했지만 지영은 전화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4 ㄹ)에서 연결어미 ‘지만’은 의미적으로 볼 때, (4 ㄷ)의 문장 안에서 선행절과 후행절만을 연결한다기보다는 (4, ㄱ, ㄴ, ㄷ)과 (4 ㄷ)의 선행절 모두를 (4 ㄹ)의 후행절과 대립관계 또는 양보관계로 접속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결어미의 기능은 단지 한 문장 안에서 절과 절을 접속하는 것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coherence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같은 용어에 대해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연구 범위가 문장 단위를 넘어서 보다 큰 범위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또한 연결어미가 어떤 대상을 접속할 때 문장 밖의 의미 요소와 연결되기도 하고, 문장 외적인 상황과 요인에 의해 연결어미의 선택이 결정되기도 한다.⁴⁾ 다음의 (5)를 보자.

- (5) ㄱ. 주빈이는 영리하지만 준모는 건강하지 않다.
 ㄴ. 주빈이는 영리하고 준모는 건강하니까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하겠다.
 ㄷ. 주빈이는 영리하다. ↔ 준모는 건강하지 않다.
 ㄹ. 주빈이는 영리하다
 ㅁ. 준모는 건강하다.

(5 ㄱ)의 문장은 탈맥락적으로 보면 비문인 것 같지만 (5 ㄴ)과 같은 문맥을 전제로 한다면 충분히 적격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때, (5 ㄱ)의 문장에서 ‘-지만’에 의해 대립하고 있는 것은 (5 ㄷ)과 같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가 아니라, (5 ㄴ)의 전제에 대하여 (5 ㄹ)은 긍정하나 (5 ㅁ)은 부정한다는 화자의 태도의 대립이다. 따라서 연결어미는 문장 차원에 국한시켜 교수·학습되어서는 안 되고, 텍스트 차원에서 언어의 실제적인 사용과 연관시켜 지도해야 한다.

국어과의 국어 지식 영역에서 접속관계를 제대로 교수·학습하려면, 접속관계를 응집성(coherence)의 틀로만 파악하여 글의 일관성, 통일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응결성(cohesion)의 틀로도 파악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하며, 응결성의 틀에 있어서도 응결장치인 접속어를 접속부사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연결어미도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연결어미를 의미·기능적으로 파악하여 접속관계를 표출하는 언어 형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연결어미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제 언어

4) 자세한 것은 줄고(1994)를 참고할 것.

사용에서 접속부사나 접속조사에 비해 출현 빈도가 월등히 높다.⁵⁾ 특히 연결어미는 문장 내에서 접속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므로,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에 있어서, 연결어미를 잘못 사용하여 문장 내의 논리적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텍스트 전체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연결어미는 국어지식 영역 안에서 기존의 교육 내용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교육 내용 자체도 실제 언어사용과 직결되도록, 연결어미의 의미·기능에 초점을 두고 텍스트의 접속관계에서 다루어야 한다. 연결어미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문장 단위 이상의 거시적인 분석을 통해 아무리 텍스트의 통일성이나 일관성, 논리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텍스트 차원의 교육이 실효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2.3. 접속관계의 양상과 연결어미의 선택

텍스트에서 접속관계는 여러 가지 언어형식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접속관계의 양상을 이은희(1993: 39-95)에서는 다음의 (6)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 (6) ㄱ. 접속구조의 위계 양상
 - ㄴ. 접속구조의 관계 양상
 - ㄷ. 접속구조의 명시화 양상

5) 안경화(2001: 151)에서는 논리적인 응결장치로서 접속부사, 관용적 연결 표현 등과 함께 연결어미를 논의하고 있는데, 토론이나 발표와 같은 고급 구어체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연결어미에 의한 문장 내의 연결이 접속부사 등에 의한 문장 내의 연결보다 3배 정도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분석대상 텍스트에서 문장 내의 연결어는 한 문장 당 약 0.3개가 쓰여, 거의 모든 문장에 연결어미가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접근이 그대로 연결어미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이 중 (6 ㄱ)의 접속관계의 위계양상은 연결어미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접속부사의 경우에는 접속의 단위가 어구, 성분절, 이어진 문장, 한 문장, 한 단락, 단락들 등 다양한 언어 층위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연결어미의 경우 접속의 단위는 절 이하로 제한된다. 첨가어인 국어에서는 접속표현이 접속 단위의 언어 층위에 따라 세 가지 다른 언어형식으로 나타난다. 세 가지 언어형식이란 접속부사, 연결어미, 접속조사를 말한다. 접속단위를 단어, 구, 절, 문장, 문단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접속단위의 종류에 따른 접속관계의 언어적 표출 형식은 다음의 (7)과 같이 대응되어 나타난다.

(7) ㄱ. 단어 → 접속조사⁶⁾, 연결어미⁷⁾, 접속부사

ㄴ. 구 → 접속부사

ㄷ. 절 → 연결어미

ㄹ. 문장 → 접속부사

ㅁ. 문단 → 접속부사

위의 (7)에서 보면 접속부사의 접속 단위는 문장 이상과 문장 이하에서 모두 가능한 반면, 접속조사의 접속 단위는 단어에 한정되어 있고, 연결어미의 접속 단위는 절 이하에 한정되어 있다.⁸⁾ 접속 단위의 다양성으로

6) 접속조사는 그 심층구조에 따라 구접속의 접속조사와 문접속의 접속조사로 다시 나누어질 수 있으나, 본고에서 논하는 접속의 단위는 텍스트의 표면에 나타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접속조사의 접속단위는 단어로 한정한다.

7) ‘연결어미’는 ‘접속조사’나 ‘접속부사’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접속어미’로 사용할 수 있겠으나, 학교문법에서 ‘연결어미’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학교문법을 따라 사용한다.

8) 접속단위 중 단어의 경우는 접속조사, 연결어미, 접속부사의 모든 언어형식으로 접속관계를 표현할 수 있으나, 접속조사와 접속부사는 명사를 접속하는 반면, 연결어미는 반드시 용언과 용언만을 접속한다. 보조적 연결어미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보면 세 가지 언어형식 중에서 접속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될 것 같지만 문장 단위 이상의 접속관계는 두 접속 대상 사이에서 의미적으로만 존재하고 언어적으로 명시화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텍스트 상에서 용언의 활용형으로 나타나는 연결어미의 출현 빈도는 접속조사나 접속부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⁹⁾

국어는 굴절어와는 달리 어미와 조사가 발달한 첨가어이므로 어미와 조사도 응결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논의하였다. 어미와 조사가 발달한 국어에서는 왜 접속관계가 모든 층위마다 다른 언어형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며 각기 다른 언어형식을 선택함으로써 나타나는 텍스트상의 차이는 무엇일지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텍스트 상에서 두 사태¹⁰⁾의 접속관계는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것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8)과 같다.

- (8) ㄱ. A . B
 ㄴ. A . 접속부사 B
 ㄷ. A -연결어미(.) B

(8 ㄱ)은 두 개의 사태가 각각 독립된 문장으로 표현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의 사태를 A, 또 다른 사태를 B라 표시하였다. 이 때 두 문장 사이에는 어떠한 언어형식도 표출되지 않았으므로 텍스트 수용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부가, 대립, 인과관계 등의 여러 가지 접속관계들을 상정해서 해석할 여지를 가진다. (8 ㄴ)은 두 개의 사태 사이에 접속어¹¹⁾가 개

9) 앞의 각주 5)를 참조할 것.

10) 이 때의 사태는 주술구조를 가진 절 단위를 말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에서 접속조사는 제외된다.

11) 여기에서는 접속부사와 접속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접속부사는 (51 ㄴ)의 문장 도식에서 문장 A와 또 다른 문장 B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접속어의 구체적인 명칭이다. 이는 학교문법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이다. 접속부사는 접속어의 범주에 포함되는 하위어로 간주한다. 따라서 접속어는 접속부사든지, 접

입된 경우를 나타낸다. 이 경우는 두 개의 사태가 각각 독립된 문장으로 표현되었지만 두 번째 문장에 접속부사가 사용되었다. 접속관계가 명시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8 ㄱ)의 경우와는 달리, (8 ㄴ)과 같이 특정 접속어가 개입이 되면 텍스트 생산자는 자신의 해석 내용을 텍스트에 고정시켜서 텍스트 수용자가 접속관계를 복원하고 설정하는 방식을 통제하게 된다.¹²⁾

그런데 (8 ㄷ)에 표현된 국어의 연결어미는 접속부사보다도 한층 더 두 사태간의 접속관계를 긴밀히 통제하는 언어형식이다. 즉, 한 문장 안에 두 개 이상의 사태를 연결하여 하나의 완결된 의미로 제한하는 것이다. 언어 사용자가 두 사태를 접속관계로 파악하여 표현하고자 할 때 몇 가지 단계의 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우선, 접속 관계가 발생하면 그것을 명시화할 것인지 아니면 명시화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한다. 이는 텍스트 생산자가 접속관계를 통제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된다. 명시화하는 경우에 비로소 접속어라는 언어 형식으로 표출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통제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두 개의 문장으로 분리하고 접속부사로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더욱 긴밀하게 하나의 문장 안에서 연결어미로 연결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만일 통제의 정도를 긴밀하게 하기 위하여 연결어미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의미관계로 연결할 것인지, 또 화자, 청자, 맥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화용적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연결어미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연결어미의 선택 과정은 다음

속조사든지 연결어미든지 간에 텍스트에서 접속의 기능을 하는 요소를 통틀어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 12) 영어의 경우, 이접접속을 제외하면 명확한 표시로서 접속표현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략) 경우에 따라 구두점만 찍고 접속표현들을 생략해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접속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생산자는 수용자가 이들의 관계를 복원하고 설정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다(Beaugrande & Dressler, 1981: 117-118).

(9)와 같이 네 차례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상정될 수 있다.

(9) ㄱ. 제1단계

접속관계의 통제 여부 선택 → 언어형식의 명시화 또는 비명시화

ㄴ. 제2단계

접속관계의 통제 정도 선택 → 문장의 분리 또는 결합(접속부사와 연결어미 중에서 선택)

ㄷ. 제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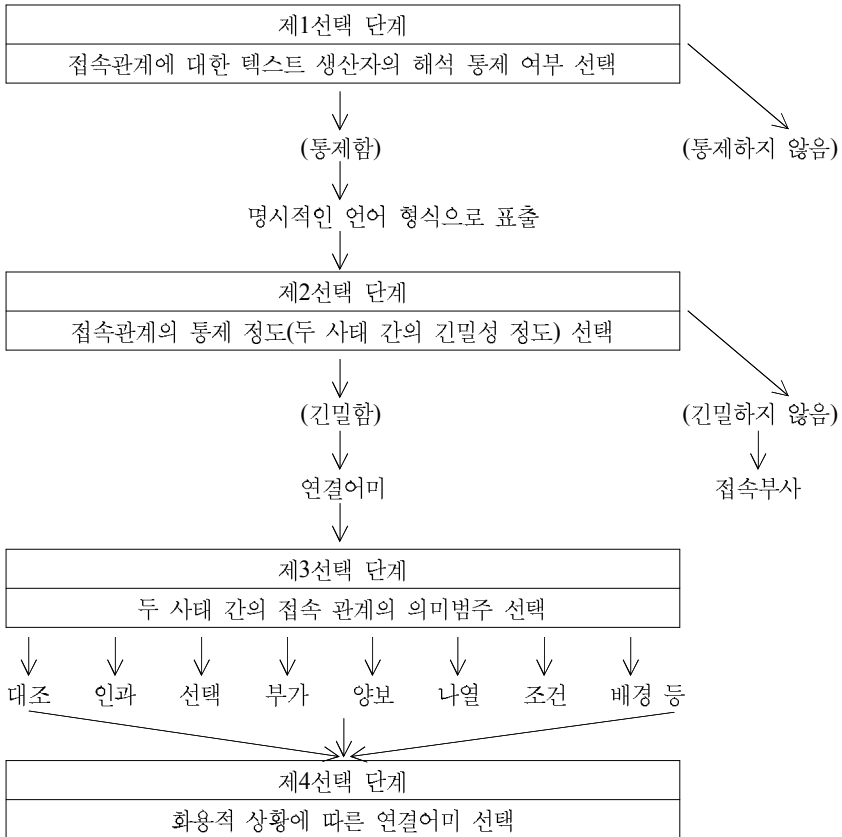
의미관계의 선택 → 의미관계에 따른 연결어미 종류 선택

ㄹ. 제4단계

화자의 의도, 청자에 대한 고려 등 여러 가지 화용적 상황에 대한 파악 → 화용적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연결어미를 최종적으로 선택

위의 (9)에서 보인 네 가지 선택 단계를 다시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결어미의 선택 단계



위의 <그림 1>과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 해당 텍스트에 가장 적절한 연결어미가 선택되어 사용된다고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연결어미도 접속부사와 마찬가지로, 텍스트에서 접속관계를 명시적으로 표출하는 언어 형식인 접속어의 한 유형으로 간주된다. 앞으로 연결어미를 국어 지식 영역에서 다룰 때, 연결어미의 의미·기능에 초점을 두고 접속관계를 나타내는 용결장치의 하나로서 언어 사용과 직결시켜 다루게 되면, 보다 실용적인 문법 지식이 될 것이다.

3. 결론

연결어미는 언어 사용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태와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관계를 표출하는 논리적 언어형식이다. 연결어미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도 국어교육에서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에 관련된 내용을 지도할 때 연결어미와 같은 미시적인 요소는 흔히 간과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접속관계와 접속표현의 교수·학습 내용에 연결어미를 배제한 채, 접속부사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어과에서 접속 관계를 교수·학습할 때, 접속부사의 사용만을 지도할 것이 아니라 연결어미도 함께 포함시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의 근거로, 첨가어인 국어의 특성상 어미도 응결장치의 일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 문장 내에서의 접속도 접속관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연결어미는 경우에 따라 통사적 차원에서 한 문장 내의 절과 절을 접속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장 밖의 의미 요소와 연결되기도 하고, 문장 외적인 상황과 요인에 의해 선택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텍스트에서 접속 기능을 하는 응결장치의 하나로 연결어미를 다루기 위해서, 연결어미에 의한 접속과 연결어미의 선택 과정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결어미의 접속 기능은 텍스트를 이루는 문장 하나하나의 기본적인 논리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텍스트의 통일성이나 논리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문장 내에서의 기본적인 논리관계를 담당하는 연결어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교육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어 교육에서 접속관계를 교수·학습할 때, 응결장치인 접속어의 범위를 넓혀 접속부사뿐만 아니라 연결어미의

기능과 사용에 대해서도 지도해야 한다.

핵심어: 연결어미, 접속관계, 응결성, 응집성, 텍스트

참고문헌

- 고영근(1999), 「텍스트 이론 -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르케.
- 교육인적자원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_____ (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_____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_____ (2002),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서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2001), 「초등학교 국어(읽기) 3-1」,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2), 「중학교 생활 국어 2-1」,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2), 「중학교 생활 국어 2-2」,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안경화(2001), “구어체 텍스트의 응결 장치 연구,” 「한국어교육」12-2, 서울: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 양태식 · 박정수(2003), 학습자용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국어 지식 내용 연구, 「한국어교육」19, 서울: 한국어문교육학회.

- 유혜령(1994), 「대립과 양보의 접속 어미」, 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은희(1993), 「접속관계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 대학원.
- 한국텍스트언어학회(2004), 「텍스트 언어학의 이해」, 서울: 박이정.
- Beaugrande, R. A./ Dressler, W.(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김태옥 · 이현호 공역(1995), 「텍스트언어학 입문」, 서울: 한신문화사.
- Brinker, K.(1992), *Linguisticshe Textanalyse*, 3, Aufl. Berlin, 이성만 역(199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Halliday, M. A. K. & Hasan, R.(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유혜령

한국교원대학교

주소 :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 7번지

전화 : 018-426-1742

전자우편 : 2somox@hanmail.net

Abstract**A Study on the Function of the Connective Endings**

Yu, Hye-ryeo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onsidering that the connective function of connective endings was not only syntactic connection of clauses, the author proposed that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connective relation should include the instruction of the use of connective endings as well as connective adverbs.

In order to instruct connective endings as a cohesion that did connective function in a text, the author formulated a stepwise process how the connection and selection of connective endings were determined.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coherence and logic of a text, the instruction of connective endings that play a important role in basic logical relation of a sentence should be emphasized as a principal factor for practical language uses.

Therefore, for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a mother tongue, the function and usage of connective endings as well as connective adverbs in a text should be instructed preferentially.

Key Words: connective endings, connective relation, cohesion, coherence, text